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본 베트남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적응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Adaptability Factors in Family Life for Vietna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Inter-culturalism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선임팀장 신 유 경*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 수 장 진 경**

Team of education and Counsel, Geumcheon-Gu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eam Manager: YooKyung Shin
Dep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JinKyung Ch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at influence interracial couples (between Korean men and Vietnamese women) when adapting to Korean family culture in terms of interculturalism. The interviewees consisted of three generations. This study used in-depth interviews. Data was collected from January to August 2008. 15 families (45 people) were used for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patriarchal culture of the two nation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adaptation of members during family interactions(2) the culture of filial piety is a value system that both nations believe is important. However, different ritual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practice of filial piety (3) the community-oriented culture is regarded

* 주저자: 신유경 (willowtree3@hanmail.net)

** 교신저자: 장진경 (jinkyung@sm.ac.kr)

as important in the two nations. However, Vietnamese wives cannot lead a free community life because Koreans see them in negative terms (4) the Vietnamese traditional wedding custom called “NopJjeOh”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adaptation to the Korean family culture (5) the preference for sons in Vietnam is not as high as in Korea. This difference had a negative influence on adaptation (6) clear differences between the daily lives of the two nation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adaptation to Korean family culture. In conclusion, Korea and Vietnam have many similarities in culture, which enable Vietnamese wives to adapt to Korean culture more easily than other foreign wives. If various programs are developed to promote th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both culture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it would further contribute toward social integration in Korea.

Key Words : 베트남 국제결혼가정(international-marriage families between Korean men and Vietnamese women), 한국생활적응(adaptation to Korean family culture), 문화상호주의(interculturalism)

I. 서론

1990년대 초기 한·중 수교 이후 중국동포 여성과 농촌지역 남성들의 결혼으로 다문화사회의 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 최근에는 지역적 경계를 벗어나 소외된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으로 확산되어 다문화가정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결혼형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국제결혼이 확산되던 초기, 한국사회가 경험한 미성숙한 사회통합의 시도들은 건강한 다문화사회의 지향에 앞서 다문화에 관한 진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함을 시사해주었다.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한국 속에 이미 세계가 들어와 있음을 인식하고(김미나, 2009: 64), 한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각 나라별 특성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문화상호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수립이 필수적일 것이다.

통계청(2009)에 따르면 1990년 4,710건(1.2%)에 불과했던 국제결혼의 총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08년에는 36,204건(8.6%)의 결혼 이민자 여성이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혼인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국제결혼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베트남전쟁 등의 이유로 한동안 단절된 상태였으나 1992년 국교가 재개된 이후 국제결혼도 재개되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을 전후해서 베트남 여성은 한국 남성의 배우자로서 의미 있는 집단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그 수는 2000년부터 놀랄 만큼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2년 사이에 33배나 증가하였다(하 밍 타잉, 2005: 6-9).

이러한 현상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과 외모적, 문화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친숙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한국 남성이 결혼 상대자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현재, 2007). 또한 최근 베트남의 높은 실업률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장진경, 전중미, 신유경, 2009). 한편, 베트남의

많은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물질적 비용이 들지 않는 국제결혼을 이주방식의 하나로 선택하고 있지만 기대했던 삶과 실제적인 삶의 차이를 깨닫게 되면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최의신, 2008).

베트남 국제결혼가족의 급증은 결혼과정에 대한 관심과 적응을 파악하기 위한 학문적 접근을 촉진시켰다. 베트남 여성의 결혼배경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김현재, 2007;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김미희, 2007; 김지은, 2007, 송유진, 2008), 베트남 국제결혼가족의 실태와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최의신, 2008) 그리고 베트남 국제결혼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하 밍 타이, 2005; 채옥희, 홍달아기, 2007; 엄혜경, 2008) 등은 다문화가족 중 베트남 국제결혼가족만을 향한 구체적인 논의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급증하는 베트남 국제결혼가족에 비해 기존의 연구는 결혼의 원인과 실태파악에 치중하고 있다. 베트남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의 가족생활적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건강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앞서 다양한 국제결혼가족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었다. 즉,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급증하는 베트남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양적연구로 파악할 수 없는 삶의 장(場)을 펼쳐놓고 한국사회에서 가족생활의 적응을 유리하게 하는 문화적 유사성 혹은 어려움을 주는 문화적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를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간주하되 문화상호주의(Inter-culturalism)를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과제로 베트남 국제결혼가족을 선정하여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베트남 국제결혼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 수립과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베트남의 가족생활문화 특성

베트남 전통은 원래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낮았으나 오늘날에는 가족 내에서의 부부는 평등하고(유인선, 1999: 6), 결혼연령은 농촌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 못하는 딸은 16세부터 결혼시키려는 부모가 많으며 결혼상대자와 연령차이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채옥희 외, 2007: 62-63). 혼인 풍습은 베트남시골마을의 절대적인 마을 내규로서 모든 마을 성원들이 ‘넉째오’라는 풍습을 따르도록 향약에 명시하였다. 이는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 마을에 물질을 기부해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 오늘날에는 일부 사라지고 있으나 예전에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상당수 여자 집안에서 무리한 혼인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부썬투이, 2006: 87-94).

전통적 문화생활에 있어 가족과 친척들에 대한 의무가 강하게 작용하는 측면을 보여준다(황귀연, 1999). 특히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부모가 젊었을 때, 늙었을 때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세 단계로 구분한다. 부모가 비교적 젊고 일을 할 수 있을 때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부모에게 대드는 경우가 매우 적고,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은 불효(不孝)라고 여겼다. 부모가 살아 있거나 연로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자식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부썬투이, 2006: 115).

베트남은 오랜 전통인 유교와 불교가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많은 국경일 중에서 구정(음력 12월 31일부터 3-7일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Le(1998)는 베트남의 전통가족에서는 자녀가 행해야 하는 도리, 조상, 조부모, 그리고 부모께 자녀 및 조카의 책임과 의무를 강하게 교육시킨다고 하였다.

2.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족의 한국가족생활적응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족은 기후, 음식, 관혼상제 등 풍습과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혼란으로 가족생활 적응문제가 생활전반에 나타난다고 하였으며(양선화 외, 2004), 음식문화에서부터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 자녀의 소속과 양육방식, 친족과의 관계 등 언어, 문화, 전통에서 오는 오해 등 문화갈등이 다방면에서 나타나는데 남편은 일정기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나 부인의 빠른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갈등은 발생한다고 하였다(신경희, 2005; 심선진, 2008). 한국 남편들은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여성이 편입되자마자 대화나 감정의 교환을 통한 친밀성이 아니라 위계적 성역할에 입각한 부부관계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남편의 가부장적 태도는 국가간 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더 강화되어, 부부관계가 '계급화'됨을 보여 준다(홍기혜, 2000: 40). 이주여성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한국인 여성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즉, 말을 안 해도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고맥락 문화'에 익숙한 남편은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할 능력도 태도도 되어 있지 않다(윤형숙, 2004: 64).

한편, 베트남 결혼이민자여성들의 문화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노유성(2004)의 외국인노동자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요인연구에서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 절친한 모국인 친구, 모국인 친구만큼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들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이 있을수록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였다. 장진경 외(2009)의 연구에서도 이주민의 조모님 또는 동족친구들과의 만남의 여부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Proulx, Helms와 Payne(2004)은 여성이 부부의사소통, 자녀양육 철학, 양육에 대한 지지, 의사결정, 여가시간, 가사노동분담, 자녀양육분담, 경제관리, 시댁과의 관계 등 다양한 영역 중 경제 관리와 시댁과의 관계에서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으나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지지모임은 원활하게 유지되기에 다양한 제한점을 갖는다고 하였다.

3. 문화상호주의

문화상호주의(interculturalism)는 자기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재규정하고 타인을 변화시키는 태도, 즉 열린 주체와 열린 유대에 기초하여 삶을 구성하는 태도를 말한다(김혜숙, 2007: 217). 신형철(1997)은 '상호적'이라는 말은 문화와 철학들 사이에서 상관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들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인종, 모든 문화, 모든 철학과 모든 언어가 동등한 위치와 가치를 부여받게 한다고 강조하였다.

1) 고맥락 문화란 커뮤니케이션이 우회적이고, 애매하며 언어에 담긴 뜻이 함축적이다. 반면, 저맥락 문화란 직설적이고 명료하며 자기의사를 말과 문자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동양은 서양에 비해 고맥락 문화를 갖는다(2000, Edward T.Hall: 최효선 역, 문화를 넘어서)

Kymlicka(1995: 81)는 한 문화가 그 문화에 속한 개인들이 좋은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문화가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그것을 존중하고 보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개인들이 원하는 좋은 삶은 사회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그들의 신념체계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문화 공동체든 간에 개인들의 선택과 결정을 보장하는 자유주의적 원리들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종, 성, 계급 등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소수자가 문화적 정체성을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하고 사회적 승인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문화상호주의의 기본 기조인 것이다(김현미, 2008: 60).

한편, 김현미(2008)는 지난 몇 년간의 한국 사회의 다문화정책이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의 가족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으로 진행된 연구의 대부분은 다문화가족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상적 대안으로서 문화상호주의적 정책마련을 제언하고 있을 뿐이며(차옥송, 2008; 김복래, 2009; Antonia, 1995; Prema kurien, 2004), 주류문화로의 일방적 동화를 가장 손쉬운 적응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상호주의적 정책마련에 대한 다문화주의 논의들은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 문화들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인정하고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진은영, 2008: 263). 이에 다양한 문화 간의 차이와 동일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내포하고 있는 문화상호주의적 접근은 한국 내 베트남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적응 사례연구를 위해 중요한 분석적 틀을 제공할 것이다. 즉, 문화상호주의적 접근은 베트남 여성들이 자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유지함

과 동시에 한국사회에서의 적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수립의 유용한 가치로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장진경 외, 2009)에서 심층면접한 31가족(93명) 중 베트남 출신의 국제결혼가족인 15가족(45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족을 선정하였다. 첫째 연애기간을 포함하여 혼인 지속 연수가 최소 6개월 이상인 베트남 국제결혼가족, 둘째 지역 유관기관이 추천한 가족으로서 가족 모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국제결혼가족, 셋째 확대가족을 포함하거나 자녀가 있는 국제결혼가족으로 한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보다 체계적인 가족생활적응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2세대 이상의 가족체계를 대상으로 베트남 문화적 관습에 따른 가족생활 적응의 동질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절차

심층면접은 양적연구로 파악하기 어려운 가족의 역동 및 처해있는 상황을 현상자체로 해석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면접은 각 가족구성원별 평균 80분을 소요하여 2회 이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국제결혼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기초자료를 통한 분석 및 전화면접 등의 방법으로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연구대상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을 하여 전사본을 작성하였다. 베트남 문화권의 이해를 위하여 연구자 외 7인과 더불어 관계적응을 도모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개념화하고 명확화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각 심층면접 당시의 분위기나 상황까지도 반영하였다. 면접내용은 선행연구고찰과 예비조사를 통해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원가족과의 관계탐색, 한국생활상의 차이점 등이 포함되도록 반구조화된 면접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베트남 아내의 연령은 최소 22세에서 최고 29세이고, 평균 21.3세이다. 남편의 연령은 최소 36세에서 최고 46세로 평균 38.5세이다. 부부의 연령차는 평균적으로 17.2세이다. 시부모의 연령은 67.9세로 최소 59세에서 최고 74세까지였다.

결혼지속연수는 최대 4년에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은 가족이 대부분으로 최소 10개월까지였다. 결혼지속연수가 짧은 만큼 자녀를 임신 중인 가족이 4가족, 1명인 가정인 4가족, 2명인 가족이 6가족 그리고 3명인 가족이 1가족이었다.

15가족 중 시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은 10가족이었으며, 5가족은 비동거였다. 결혼형태를 살펴보면 10가족은 중매결혼을 하였고, 5가족은 연애결혼을 하였다. 베트남 국제결혼 가족은 중매업체를 통해 결혼한 유형이 빈번함을 알 수 있었다.

베트남 아내들 중 고등학교 졸업은 4명이고, 대학교 졸업과 중학교 졸업이 각각 2명이었다.

그 외에는 무학이거나 무응답 하였다. 남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6명으로 가장 많고, 대학교 졸업이 4명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이 전업주부였으며, 미싱보조 혹은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이 5명, 목수가 2명 그 외에 농업,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가계소득은 평균 189만원으로 최대 841만원에서 최소 30만원이었다.

2.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족의 한국가족생활 적응의 동질성과 차이점

오늘날의 베트남 문화는 외래문화와 민족문화, 공동체문화와 개인문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를 형성하고 있다(채옥희, 홍달아기, 2006: 62). 중화권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은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가부장제, 효, 공동체문화 등 지배적 가치관이 한국과 유사하다. 한편, 음을 중시하는 베트남의 수도작 문화는(부썬투이, 2006) 두 나라의 혼인, 임신과 출산 등에서 한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한국과 베트남의 지배적인 가치관인 가부장제, 효(孝)문화, 공동체문화, 혼인 풍습, 임신과 출산풍습을 기반으로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적응에 나타나는 영향을 동질성과 차이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가부장제

유교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은 집안의 어른과 남편을 공경하고 자신을 낮추는 문화에 익숙하다. 특히 가부장제는 농경사회의 오래된 관습으로 유교를 받아들인 이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관념에 기초하여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했다(부썬투이, 2006: 88).

사례 3의 남편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만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번호	구분	결혼지속연수	연령	시부모 동거여부	결혼방법	자녀수	학력	직업	소득
1	아내	2년	23	동거	중매	1	고졸	전업주부	210
	남편		37				대졸	회사원	
	시부모		62				고졸	-	
2	아내	4년	24	동거	중매	2	고졸	전업주부	280
	남편		42				중졸	금형	
	시부모		60				-	마트직원	
3	아내	4년	27	비동거	연애	2	고졸	전업주부	841
	남편		44				대졸	회사원	
	시부모		74				-	무직	
4	아내	10개월	23	동거	중매	임신 중	-	-	30
	남편		39				고졸	대학원	
	시부모		64				-	-	
5	아내	2년	23	비동거	중매	임신 중	-	전업주부	233
	남편		37				대졸	공무원	
	시부모		59				-	-	
6	아내	1년7개월	22	동거	중매	임신 중	대졸	전업주부	150
	남편		38				대졸	회사원	
	시부모		70				-	-	
7	아내	1년	28	동거	중매	2명	중졸	전업주부	150
	남편		38				고졸	회사원	
	시부모		60				-	-	
8	아내	2년	25	동거	연애	2명	-	전업주부	250
	남편		40				고졸	목수	
	시부모		74				-	-	
9	아내	4년	23	동거	중매	3명	고졸	전업주부	120
	남편		36				고졸	회사원	
	시부모		69				초재	-	
10	아내	3년	29	비동거	중매	1명	중졸	미싱보조	270
	남편		53				전문대졸	개인택시	
	시부모		70				초졸	-	
11	아내	1년	22	비동거	연애	2명	대졸	식당종업원	150
	남편		45				-	자영업	
	시부모		65				-	-	
12	아내	1년3개월	23	동거	연애	2명	대졸	전업주부	30
	남편		43				-	-	
	시부모		75				-	-	
13	아내	2년	23	동거	중매	1명	-	전업주부	100
	남편		43				고졸	고물상	
	시부모		76				-	-	
14	아내	3년	23	동거	중매	1명	중졸	전업주부	50
	남편		46				고졸	목수	
	시부모		71				-	-	
5	아내	1년	22	동거	연애	임신중	중졸	식당종업원	30
	남편		37				고졸	농업	
	시부모		69				-	-	

남자인 제가 리드를 하려고 해요. 와이프가 한국에 올 때부터 남자는 하늘이야.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많고 남자인가 가정을 위해서는 제가 더 리드하는게 좋죠. 요즘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긴 하지만 뭐랄까 (한 가정에서)같이 살면 그래도 남편이 가장이니깐 그리고 아내는 어머니니까 리드를 못하잖아요.”라고 하였다.

사례 6, 10의 아내들은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 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긴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까” 라든가 “남편이 나이가 많고 저는 한국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낯선 한국에서는 남편이 제일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예요.”라며 남편이 집안의 가장임을 자연스럽게 인정했다.

한편, 한국남성의 가부장권은 한 가정의 경제권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사례 7의 아내는 “내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무시하고 돈 쓰는 것과 일상생활을 통제하려한다.”고 하였다. 사례 4, 7의 시부모의 경우 베트남 며느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와 무조건적 내조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며느리가 늦게까지 일어나지를 못하니 밥을 못 먹고 나간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남편 아침밥을 그렇게 소홀히 하나?”, “아무리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게 싫어도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처음에 남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자려고 하는 걸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라고 하였다.

베트남의 가부장제 관습은 가족주의의 영향에서 기인한다.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와 가부장제의 순응은 두 나라간 공통문화를 공유하기에 유리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의 평등한 부부관계 및 상호적 가족관계에 대한 지향은 무조건적 순종 및 일상생활의 통제와는 거리가 있다. 건강하고 평등한 부부관계 및 시가친척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가부장제의 올바른 이해

를 구축시키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적응에 유용할 것이다.

2) 효(孝)

유교문화권의 영향으로 인한 베트남의 조상숭배문화는 한국가족생활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 1의 남편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장남이라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어리고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 하나도 모를 거라고 여겨서 염려를 많이 했다. 그러나 아내한테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한다고 했더니 의외로 베트남에서도 제사를 지낸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사례 1의 아내는 “베트남에서도 제사를 지내긴 했지만 한국에서 며느리가 되어 제사를 준비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웠다.”고 하였다.

사례 12, 15의 시어머니는 베트남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베트남을 효성이 지극한 나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전혀 몰랐어. 그 나라에도 제사를 지낸다는 거야. 그래도 전통이 있는 나라니까 손자가 태어나도 제삿밥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좋아. 제사 때문에 불편한 건 없어.”, “며느리가 베트남에서 왔어도 어른들, 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살면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른 공경하는 문화는 국경이 없어.”라고 설명하면서 베트남 며느리의 부모공경정신이나 제사를 모시는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였다.

베트남의 노부모부양이나 제사의식에 대한 이해는 한국사회의 적응에 유리한 요인이다. 유교문화권에서 조상숭배에 대한 신념이 강한 한국은 노부모부양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윤리적 잣대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한편, 부모와 조상을 향한 두 나라의 신념이 유사할지라도 그 형태에 따른 차이

는 관계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차와 형태에 따른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공동체문화

베트남인들은 일생을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와 결부되어 생활하면서 베트남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사례 1, 5, 9의 아내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남편 빼고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한국어 공부 시작하면서 조금씩 아는 사람이 생기고 선생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다.”라며 한국사회에서 이웃들에게 받은 도움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또한 “베트남에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지만 학교(한국어 배우는 곳)에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지금은 한국어를 조금 잘하게 됐는데 친구들이랑은 베트남어로 말한다. 속이 후련해진다.”라며 타국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해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베트남 며느리 혹은 아내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사례 8의 시부모는 “매번 거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있으니 안 좋은 걸 배워온다. 한 동안은 누구는 ‘친정에 돈을 얼마 보낸다, 얼마 보내줬다’더라 이러면서 (남편이랑) 얼마나 싸우던지 거기 가지 말라고 해버렸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사례 11의 남편도 “답답해요. 한 동안은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집에 있으면 향수병 걸릴까봐 학교 보내고, ‘바로 와라, 항상 전화를 했죠, 집에 몇 시에 들어 왔나?’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곤 하니까 그 시간에 안 오면 혼난다고 했으니, 그 시간에 안 오면 불안하죠. 그렇게 좀 지나니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행동을 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안 듣고, 조금 씩 변하더라고요.”라고 말하

여 공동체와 모임에 속하는 것에 대해 베트남 아내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낯선 한국사회의 문화와 편견으로 인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사례 6의 아내는 “아이가 놀이터에 가고 싶어 해서 함께 나갔는데 다른 엄마한테 인사하니까 받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안하게 됐어요.”라며 이웃과 조화롭게 생활하거나 친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사례 7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고 언어도 모르니 집 안에만 있는 게 제일 편하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한국은 아직 낯설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공동체문화 혹은 부족문화에 익숙한 민족으로서 이웃과 상호 작용하며 살아간다. 일반적으로 먼 타국에서 온 베트남 아내들은 동일민족과의 모임이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완화시키는 방법인 반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사회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아직 타민족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문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 혼인풍습

베트남과 한국은 한 가족의 생성을 의미하는 혼인과 관련된 풍습 및 전통에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 베트남의 조혼풍습, ‘눔째오’은 대부분 사라지고 있으나 한국의 혼인풍습과는 차이를 보인다.

사례 6의 아내는 “부모님은 제가 20살일 때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제 동생은 지금 15살인데 한국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해요.”라며 이른 결혼이 낯설지 않았으나 사례 6의 남편은 “한국에서는 아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거니까 임신을 천천히 하라고 했다.”고 하였다.

한편, 베트남의 전통혼인풍습은 현재 국제 결혼이 이루어질 당시 베트남의 여성 집안에 현금을 건네주는 절차와 관련하여 문화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사례 13의 경우 남편은 중매기관을 통해 “아내와 결혼할 당시 지불했던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부관계 초기 그리고 현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돈을 좀 주고 데려왔어요. 사실 한국여자들이랑 결혼하려면 택도 없지만 그래도 돈을 내고 데려왔다는 게 집사람이 알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돈을 주고 데려왔다는) 자꾸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치사한 것 같지만 사람이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보상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돈을 내고 널 데려왔는데 너도 잘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였다.

사례 8의 시부모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한국의 혼인풍습과는 다른 점을 못내 아쉬워하며 “옆집이나 저기 아랫집이나 며느리가 결혼하면서 예단도 해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게 없었어. 한국에 미리 와 있었던 베트남 친구랑 연결이 돼서 우리 아들이 소개받고 연애하고 결혼했거든. 그러니 사정을 뻔히 다 알고 요구할 수 없겠더라고” 하였다. 사례 3의 시부모는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해왔지. 그래도 지들이 여기서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러 다녀. 나는 상관 안하려고 하는데 가끔 씹씹이가 해퍼서 ‘알뜰살뜰 아껴서 돈도 모으고 그래야지 나중에 자식들 시집, 장가 갈 때는 이것저것 해서 보낼 거 아냐?’라고 잔소리를 하지.” 라고 말하면서 며느리가 예단을 해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과 부모와 남편을 성실이 모시면서 예단을 해오지 않은 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잠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베트남은 경제적 필요와 친정의 여건에 의해 베트남 여성의 결혼연령이 낮아지고 국제결혼 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한국남성들이 전통적인 베트남의 혼인풍습과 여성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혼 초기부터 관계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증가되던 초기, 한국남성들은 베트남 아내를 ‘사왔다’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가정폭력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상호 혼인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통해 이와 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없애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5) 남아선호

베트남 아내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 만약 딸을 낳을 경우에는 시집 혹은 남편의 압력으로 인해 아들을 낳기 위해 둘째, 셋째를 출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하밍타잉, 2005: 46). 사례 5, 14의 아내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빨리 손자를 안겨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딸을 낳아도 되는데 웬만하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해서 임신 기간 동안 불안했어요.”라고 하였고, “베트남에서는 딸 낳아도 너무 축하해주는데 사실 너무 서운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사례 14의 시부모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아이가 들어섰더라고. 며느리한테 딸은 안했지만 그래도 장남이니까 아들을 기대했지. 요즘에 딸이 아들보다 낫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아들이 있어야 든든해. 내 제사는 아들이 지낼 거잖아. 둘째는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라고 하였다.

사례 2의 남편은 “내가 우리 집에서는 장남인데 첫째는 딸을 낳아서 부모님들이 표현은 안하셨지만 조금 서운해 하셨던 것 같아 둘째

낳을 때는 꼭 아들이었으면 했다”고 하였다. 반면 사례 11의 남편은 “요즘에는 아들보다 딸이 낫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들 낳으면 나 같이 될까봐 딸 낳아서 예쁘게 키우고 싶었어요. 요즘 한국에서 남자로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내 자식한테 그걸 그대로 물려준대요.”라며 한국 사회에서 남자로서 사는 삶의 기대치가 부담스러워 딸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었다.

베트남의 혼인풍습에 따라 남편보다 어린 아내는 시부모들 사이에서 2세를 위한 긍정적 조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최근 한국은 딸과 아들을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딸의 출생을 환영하는 문화가 지배적임에도 여전히 베트남 국제결혼가족은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딸보다 아들을 선호는 시부모의 태도는 베트남 며느리와 갈등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국제결혼가족의 가족생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5가족을 심층면접하여 베트남과 한국문화 비교를 통해 국제결혼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족의 한국가족생활 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문화상호주의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으로 남편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익숙한 베트남의 문화는 베트남 국제결혼 가족의 관계적응을 용이하게 하지만 시댁친척과 남편에게 베트남 아내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가치개념을 형성하기도 한다. 최근 한국사회가 상호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고수하던 가치가 가족 간의 관계적응

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 가족체계 전체를 대상으로 조화로운 관계정립을 도모할 수 있는 인식전환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부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상호존중에 대한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집단상담 및 자조모임의 구성은 다문화가족만의 새로운 문화형성에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부부 및 가족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다문화상담전문가 양성 또한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부모에게 순종하고 나이든 부모를 부양하며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는 베트남의 효(孝)문화는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체계이다. 효(孝)문화의 형태와 모양은 다를지라도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베트남 며느리는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한국의 복잡한 제례절차는 베트남 여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적응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가족의 문화를 인정하되 일반적인 한국의 제례문화 및 효(孝)의식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베트남과 한국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민족으로서 베트남 아내들과의 모임은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해소하는 분출구이다. 반면 적응초기 외국인 여성들의 빈번한 가출에 대한 보도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이웃과의 비교는 한국 시가친척 및 남편에게 불안과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 이는 베트남 아내들이 이웃과의 연대를 제한당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이웃과의 연대를 중요시하고 공동체 문화에 익숙한 점을 고려한다면 베트남 국제결혼 가족의 적응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과 베트남은 공동체문화에 익숙하고 한국생활 적응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를 고려한다면 상호간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개입으로 실제적인 사회서비스지원 및 활용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베트남은 모계중심사상에서 비롯된 혼인풍습으로 남성이 여성의 집에 사례를 해야 한다. 중매업체의 개입으로 베트남과의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베트남의 전통적인 혼인풍습을 대리 수행하는 한편, 한국남성의 사례금 지급은 ‘아내를 사왔다’는 그릇된 편견을 확산시켰다. 결혼지참금에 대한 내용은 베트남 아내보다 남성에게 주로 언급되고 있으며, 결혼 후에도 원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 아내의 태도로 침예하게 대답하기도 하였다. 두 나라의 혼인풍습에 따른 차이를 숙지하지 못한 결과 다문화가족의 확대와 유기는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베트남 아내와 남편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내용의 교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즉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결혼예비교실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서로 다른 혼인풍습을 이해하고 그릇된 인식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내를 대상으로 정확한 형식이 갖춰지기는 어렵더라도 한국의 혼인풍습을 숙지하여 차별화되고 가족친화적인 혼인풍습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합한 적응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동일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베트남은 남아선호사상이 그리 심하지 않은 반면, 한국의 남아선호사상은 베트남 국제결혼 가족의 갈등요인으로 언급될 수 있었다. 최근 한국사회도 남아보다는 딸을 선호하는 젊은 세

대가 증가하면서 남아선호사상은 보수적인 신념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남아선호사상은 베트남 국제결혼 가족의 특수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한국의 건강한 다문화사회적응은 베트남 아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문화 가족의 가족신념을 형성하는 남편과 시가친척도 함께 노력해야 완성될 수 있다. 즉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친밀감을 향상시키면서 상호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상대의 문화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한국사회의 일방적인 동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베트남 아내들에게 한국어, 한국요리, 한국문화만을 배우도록 하였다. 한국사회에는 이미 세계가 자리 잡고 있다. 성숙한 세계화를 기대한다면 국제결혼 여성들에게 일방적인 동화만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근본적 해답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과거 단일민족으로서의 주체성을 으뜸으로 여기던 의식구조에서 깨어나 타 문화를 포용하고 바람직한 문화는 계승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서로의 차이와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문화 속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사회통합의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급증하는 베트남 국제결혼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미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필리핀 등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 국의 문화적 특성과 한국생활 적응에 유용한 연구 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 문화권간 차이를 이해하고 한국생활적응에 서로 다른 영향을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실시된다면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착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기지혜, 김정원, 서미진(2007). 베트남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응 전략 모색.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2) 김미나(2009). 다문화교육정책의 추진 체계 및 정책 기제 연구: 행위주체별 정책 목표와 수단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2(2), 63-96.
- 3) 김미희(2007).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에 대한 인식-베트남 이민여성에 대한 사례연구-. 교육논총 28(2), 183-207.
- 4) 김복래(2009). 프랑스, 영국, 미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교고찰: 삼국의 이민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7(1), 207-236.
- 5) 김지은(2007). “한국인 아내” 만들기: 베트남 여성 사례를 통해 본 결혼 이민의 제도화. 비교문화연구 13(2), 41-72.
- 6) 김현미(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6), 57-79.
- 7) 김현재(2007).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52), 215-254.
- 8) 김혜숙(2007).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주의: 열린 주체 형성의 문제. 철학연구 (76), 203-229.
- 9) 김호섭(2000). 베트남의 시장 지향적 개혁과 소득 분배의 변화-홍하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KRF 연구결과 논문.
- 10) 노유성(2004).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1) 부썬투이(2006).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 서울 : 대원사.
- 12)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 보건복지부.
- 13) 송유진(2008). 베트남 국제결혼 여성의 혼인이주 원인 및 의사결정과정.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581-595.
- 14) 신경희(2005).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남성과 필리핀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5) 신행철(1997). 세계화시대의 사회문화의식. 아산복지재단 연구보고서.
- 16) 심선진(2008). 외국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스트레스에서 가사노동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한국비영리연구 7(1), 97-135.
- 17) 양선화, 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신봉관, 조지현 (2004).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 127-149.
- 18) 엄한진(2009). 프랑스의 이민정책의 특수성과 다문화주의의 도전. 선문대 다문화정책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 19) 염혜경(2008). 베트남결혼이민여성의 적응 과정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0) 오정화(2007). 이민자문화를 통해 본 한국 문화.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21) 유인선(1999). 싱가포르: 동남아의 선진복지국가.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22) 윤형숙(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23) 장지표(2008). 다문화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다문화통합 사회프로그램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24) 장진경, 전종미, 신유경(2009).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21-38.

- 25) 진은영(2008).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인권. 철학연구 (95), 255-283.
- 26) 차승은, 김두섭(2008). 혼인이주 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과 우울증: 일본, 중국, 베트남 아내의 비교. 한국연구학 31(3), 131-157.
- 27) 차옥송(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 피해실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담론 2011(2), 139-169.
- 28) 채옥희, 홍달아기(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 29) 최경숙(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0) 최의신(2008). 베트남 국제결혼가정의 가족생활실태와 가족기능·부부갈등에 관한 연구-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1)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32) 하 밍 타잉(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3) 현택수(2003). 문화복지와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6), 101-122.
- 34)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5) 황귀연(1999). 베트남의 對중국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아시아지역연구 2, 12-31.
- 36) Antonia I. castaneda(1995). Women of color and the rewriting of western history: the discourse, politics, and decolonization of history. pacific historical review 61(4). 501-53.
- 37) Hall, E. T.(1976). Beyond Culture. 최효선 옮김(2000). 『문화를 넘어서』. 서울 : 한길사.
- 38) Kymlicka, will(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39) Le Nhu Hoa(1998), Hon lexuavanay o Viet Nam: 베트남 과거 현재 혼례,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학종합연구센터역.
- 40) Prema kurien(2004). Multiculturalism, immigrant religion, and diasporic nationalism: the development of an american hinduism. social problems 51(3), 362-385.
- 41) Proulx, C., Helms, H., & Payne, C. (2004). Wives' Domain-Specific "Marriage Work" with Friends and Spouses: Links to Marital Quality. Family Relations 53, 393-404.

- 투 고 일 : 2010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4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8월 23일